

삼천동 막걸리골목 활성화계획 추진

전주시, 문화·공동체·술 등 3가지 측면 활성화 전략 도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터 전개

대한민국 대표 막걸리골목인 전주시 삼천동에는 앞으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한 작은 양조장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막걸리골목을 중심으로 삼천동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삼천동 막걸리골목 문화콘텐츠 강화 등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작은 양조장 설치, 전국 8도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생산지의 문화 행사를 보여 맛보는 '8도 막걸리 축제'와 같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됐다고 8일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사)지역농업연구원은 지역조사를 통한 여건 분석과 전문가와 지역사회 리더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주민설명회를 거쳐 문화와 공동체, 술 등 3가지 측면에서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전략을 도출, 세부 사업과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문화 콘텐츠 전략의 경우 기존 삼천동 막걸리 축제를 확대해 전국 8도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맛보고 생산지의 대표문화 공연을 결합한 '8도 막걸리 축제'를 열고 명사와 즐기는 막걸리 종류, 시민 막걸리 와이머니와 동네 한 상 등의 특별 문화이벤트 사업이 제시됐다. 또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 경계형 벤치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도 제안했다.

또 커뮤니티 콘텐츠 전략의 경우 막걸리 골목을 중심으로 한 주민·상인간 상생발전과 삼천동 골목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삼천사람 공동체 만들기, 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PM(프로젝트



사랑 가득히 영양도 듬뿍 8일 전주시 덕진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가득! 영양만점! 명절음식 나눔' 행사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명절음식을 만들고 있다. 이번 명절음식 나눔행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명절 음식을 장만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매니저) 배치 등이 막걸리골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됐다.

끝으로 술 콘텐츠 전략에는 삼천동 막걸리골목만의 특색있는 막걸리 및 파생상품 개발, 관광객 체험을 위한 작은 양조장과 작은 판매장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 막걸리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교육프로그램과 술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이번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특히 삼천동 막걸리골목 활성화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지역주민과 공동체, 공방예술인, 막걸리 상인들의 지역 상생을 위한 삼천사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삼천동 막걸리골목은 최근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기억과 전주의 문화가 오롯이 담긴 곳"이라며 "막걸리골목 상인들과 인근 주민, 문화예술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활기찬 삼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한바탕 전주 즐기기'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장려상

전주시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블로그 운영활동을 우수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시는 이번 블로그 어워드에서 블로그 콘텐츠의 질, 디자인 및 MI(사용자 환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부문 18개 지표로 심사 기준으로 전문가와 블로거 평가단의 평가를 최종 종합해 공공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 및 전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균형감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시청 소용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주시 블로그(http://blog.jonju.go.kr)는 '한바탕 전주 즐기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2년 6월에 개설, 최근에는 일평균 2,500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전주의 정책부터 문화, 관광, 일상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는 40명의 시민 블로거 기자들이 취재한 콘텐츠로 전주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선택이 사회적경제기업 이동판매장터'

9일 시청 로비에서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온 사회적기업이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8일 국민연금공단 로비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사회적기업 가치를 공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이 사회적경제기업 이동판매장터'를 열었다.

이동판매장터에는 사회적기업 4개소와 마을기업 4개소, 자활사업단 7개소 총 15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 직접 생산한 킷파우치와 EM천연비누, 생강편, 오방떡국떡 등 3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다.

한편 9일은 전주시청 로비에서 이동판매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참여기업들의 매출상승으로 이어져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판매행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견인할 기업으로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생계급여 14일 지급

전주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위해 생계급여를 평소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설 명절 준비를 위해 매달 20일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오는 14일 일제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매달 말택배로 배달되는 정부양곡이 설 명절을 맞아 일반 택배 물량과 겹쳐 배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조기물량 확보로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설 앞두고 병든 소 불법 도축·유통 일당 검거

김모씨 등 2명 구속·정모씨 등 13명 불구속 입건... 정상 소고기와 섞어 시중 유통

설명절을 앞두고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54)씨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은 소, 뿔로 배가 찢긴 일명 멧든 소 등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한 소와 병이 들어 죽은 소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불법적으로 도축을 한 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막사에서 나온 분뇨 등을 쌓아놓은 퇴비더미 옆에서 사료포대를 깔아놓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도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소를 도축하려면 도축장에 신청을 하고 도축장에서 브루셀라, 구제역 질병 및 소의 거동이나 호흡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검사 후 도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 도축한 소고기를

정상 도축된 소고기와 섞어 시중에 유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미 불법 도축된 소들은 대부분이 소비돼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와 같이 불법 밀도축이 다른 곳에서도 행하여 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적발된 건 외에 추가 밀도축 의뢰자 및 부산물 등 유통업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무자료' 기름 1천만 l 유통시켜 72억 채긴 일당 구속

무자료 기름 1천만 l를 정상 기름인 척 유통시켜 7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선박주유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으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원어치 무자료 기름 1천만 l를 구매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여 모래채취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기름은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기름과 다르게 연료공급서가 없을 뿐더러 열악한 시

설에 장기간 보관돼 성분이 다른 기름과 섞이면서 황(S)성분이 높아져 연료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기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에게 기름을 구매할 업체는 정부 지원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한번에 많은 양을 공급하는 선박은 주유량과 성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조악한 품질로 기계 고장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최초로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일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